

12월 8일 황공하옵께도 내리옵신 宣戰大詔는 우리 2천 4백만 민중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같이 받든 것이다. 그러나 아직도 우리들 중에는 이를 깨닫지 못하는 이가 있는 모양이다. 이제는 다 청산하고 천황폐하의 뜻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. 이제 우리의 나갈 길이 있다면 오직 皇國臣民으로서 각오를 굳게 하여 나는 “천황폐하 어른의 아들이니라”는 생각을 늘 잊지 말고, 이 성업 완수에 매진할진대 子子孫孫 영화를 얻을 것이다.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다만 멸망의 길이 있을 뿐이다.